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

울산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 4. 25.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2018. 4. 27.

울산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사업' 착수

울산시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고령화 정도와 실태를 분석하는 등 울산형 고령친화도시 조성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인증 사례연구 ▲울산 고령친화도 분석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방향과 비전 설정 ▲울산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노인복지기본조례 제정안 제시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인증 기준에 부합시키고, 'WHO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아 내년에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WHO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광주시는 고령층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광주만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경제·문화·보건·교통·환경 등 분야별 고령친화도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 중 국내외 우수 사례를 수집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이 살기 좋은 광주시 계획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노인 실태 조사를 벌이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정과 종합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외부환경, 교통, 주택, 사회여가활동, 일자리, 사회통합, 정보, 보건 등 8개 기준영역 마련

** 인구 고령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고령사회정책의 정보망이자 정책 포럼의 장으로, 현재 스위스 제네바, 미국 시카고, 뉴욕, 포틀랜드, 캐나다 오타와 등 총 37개국 541개(2017년 말 기준)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